

국토이슈리포트

제 32호

2021년 1월 27일

| 발행처 | 국토연구원 www.krihs.re.kr | 발행인 | 강현수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대책연구원로 5

프랑스 **안 이달고**(Anne Hidalgo) 파리시장의 **‘내일의 도시 파리’ 정책공약**

* 이 글의 전체 내용은 이달고 정책공약 홈페이지(<https://annehidalgo2020.com/>)를 요약한 것임

요약

■ 안 이달고(Ane Hidalgo) 파리시장 소개

- 2014년 4월부터 파리시장 역임하여 2020년 재선에 성공함
- 사회당(Parti Socialiste: PS) 소속으로 여권신장에 기여했다고 평가되며, ‘노동법’, 남녀평등 및 사회관계 분야가 전문임
- ‘생태’를 정책공약의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평등·연대·근거리서비스(15분 도시)에 기반한 다양한 시정사업을 제시함

■ ‘내일의 도시 파리’(Le Paris de demain) 정책공약

- ① 도보와 자전거로 통행하는 푸른 도시
 - 푸르고 쾌적하며 다양한 생물이 공존하는 도시 구상
 - 시내 도보전용공간 확대, 자전거길 조성, 자동차 운행속도 및 통행량 제한
- ② 연대(solidarité)의 도시
 -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구분하는 주택공급정책 시행
 - 노인·장애인·한부모가정을 위한 지원, 기본진료비 수준의 의료인프라 구축
 - 모든 세대를 위한 기반서비스 확충
- ③ ‘모두에게 평등한 파리’를 위한 약속
 - 성차별, 인종차별이 없는 도시, 장애인의 통행권 보장
 - 서민 지구 개발을 위한 투자비 확대
- ④ ‘15분 도시’(La ville du quart d'heure) 파리
 - 도시를 15분 생활권으로 새롭게 조직, 근거리서비스 강화
 -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시민의 창구’(Kiosque citoyen) 설치

■ 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도시 파리는 사회적·환경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결속과 연대의 가치를 중시

- 글로벌 생태적·사회적 전환을 위해서는 도시가 개방적·포용적 환경이 되어야 함을 강조
- (시사점) 코로나19의 위기, 지역·계층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행위자가 참여해 도시의 혁신성을 발현하고 촉진하는 것이 필요함

이수진 프랑스 낭트대학교 강사
허동숙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부연구위원

1

안 이달고(Anne Hidalgo) 파리시장 소개¹⁾

2014년 4월부터 파리시장 역임, 2020년 재선에 성공

안 이달고 시장은 스페인 태생으로 2세 때 프랑스로 이주한 여성 정치인

- 1959년생, 스페인 서민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나 프랑스로 이주, 노동사회학 전공으로 석사학위 취득
- 근로감독관으로 재직하다가 30대에 사회당(Parti socialiste: PS)에 입당
- 베르트랑 들라노에(Bertrand Delanoë) 前 파리시장 재임기간인 13년간 파리 부시장 역임(양성평등 담당 및 도시계획위원회 회장)

사회당 소속으로 여권신장에 기여했으며, '노동법' 및 남녀평등과 사회관계 분야가 전문임

- 프랑스 사회당은 1981년 프랑수아 미테랑(François Mitterrand) 대통령을 시작으로 약자와 서민 중심의 복지, 평등정책, 이민자 포용정책을 추진
- 안 이달고는 노동부 장관실에서 여성의 권리와 직업교육 자문을 담당, 직업의 양성평등 관련 법안 준비에 참여했고, 법무부 장관실에서 사회적 관계와 공무원의 지위·업무 설정을 담당함

정책공약은 '생태'(Ecologie)를 중심으로 평등·연대성·근거리서비스(15분 도시)에 기반한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 안 이달고가 내세운 공약 슬로건은 '모두의 파리'(Paris en commun)로, 모든 공약을 아우르는 핵심 메시지는 '친환경'과 '생태'임
 - 대도시 권력, 시장의 논리에 순응하지 않고 도시 이용에 있어 모든 시민의 권리를 존중, 주택공급정책을 다양화하려는 의지를 보여 서민층의 지지가 두터우며 이를 바탕으로 2020년 6월 파리시장 재선에 성공함
 - 1차 투표에서 사회당(이달고)이 1위, 2차 투표에서 녹색당과 연합하여 '파리를 위한 선언문' 발표한 뒤 압승을 거둠*
- * 프랑스 선거는 일반적으로 1차 선거에서 한 정당의 득표율이 과반을 넘기지 못하면 10% 이상 득표한 정당끼리 2차 결선 투표에서 승패를 가림

2

정책공약① 도보와 자전거로 통행하는 푸른 도시, 파리

푸르고 쾌적하며 다양한 생물이 공존하는 도시

오늘보다 내일이 더 푸른, 깨끗한 친환경 녹색도시 파리

- 산책과 달리기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파리지 및 인접한 곳의 공원과 정원을 연결
- 파리에 아이가 한 명 태어날 때마다 가로변과 도심정원에 나무를 한 그루씩 심어 5개의 도심 숲, 100여 개의 소공원, 4개의 대공원과 텃밭 조성을 계획
- 센 강(La Seine)의 수질개선 프로젝트 일환, 2017년부터 라빌레트(La Villette) 인공수로를 시민을 위한 여름 수영장으로 활용, 생마르탱운하(Le canal Saint-Martin)와 센 강에 하천 수영장 확충을 계획
- 헬리콥터 착륙장 일부를 생태다양성 공원으로 조성하여 생물종 보전 및 다양화 강구

1) Wikipedia_Anne Hidalgo. https://fr.wikipedia.org/wiki/Anne_Hidalgo (2021년 1월 6일 검색).

친환경 로컬푸드 적극 이용, 일회용 쓰레기가 없는 도시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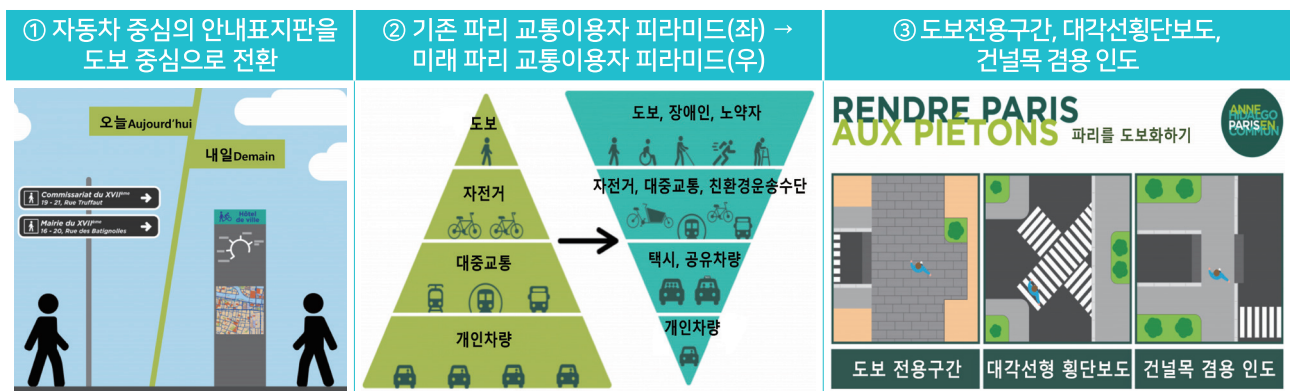
- 📍 ‘아그리파리’(Agri Paris) 협동조합 창설,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수도권의 로컬 농산물 적극 활용
- 📍 2024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학교와 유치원 급식에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근절
- 📍 모든 길에 분리수거 쓰레기통 설치 및 자연발효식 처리 방법(compost, 퇴비) 적극 활용

도보 중심 도시, 100% 자전거 이용이 가능한 도시

도보 중심의 도시 지향

- 📍 파리 중심부 도보화(센 강둑길)를 비롯하여 시내 모든 지구에 도보전용구간 마련
 - 센 강변 자동차도로를 인도로 전환하는 계획은 초기에 큰 반대에 부딪혔으나 집권 1기에 결국 실현, 다른 구간도 추가로 도보화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재조성할 예정
 - 시내 중심부는 도보화하되, 장애인·주민, 택시, 긴급은행차량, 소상공인, 상업시설, 전기 셔틀버스 예외 허용
 - 주요 도로를 제외하고 시내 전역의 자동차 운행속도 30km/h로 제한, 교통량 통제
 - 현재 승용차·대중교통·자전거·보행자 순인 교통이용자 피라미드를 보행자·약자, 자전거·대중교통, 택시·공유교통수단, 일반승용차의 순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보행자 안전 방안 강구

〈그림 1〉 자동차 중심에서 도보 중심의 파리로 변환하기 위한 계획



출처: Paris en Commun. Priorité piétons. <https://annehidalgo2020.com/plan-pieton/> (2021년 1월 14일 검색).

2024년까지 자전거로 통하는 도시 만들기

- 📍 2024년까지 모든 파리지 길을 자전거로 통행할 수 있도록 정비, 자전거 사용에 필요한 교육 시행, 업계에도 운송수단을 트럭에서 자전거로 바꾸는 방안 제공
- 시내 60ha 주차공간(전체의 45%)을 녹색공간, 인도 확장, 자전거길 및 보관박스, 배송차량 및 공유자동차 주차장, 장애인 차량의 주차공간으로 전환, 일반 자동차는 지하 주차장 이용 유도
- 파리와 인접한 코뮌(commune, 프랑스 최소 행정구)을 연결하여 그랑파리(Grand Paris) 내 접근성 향상, 일드프랑스(Île-de-France)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자전거 도로망 RER V(Réseau Express Régional Vélo)에 연계하여 자전거 이용의 잠재력 대폭 확대

〈그림 2〉 2024년 파리지 자전거길 구상



출처: Paris en Commun. Toutes et tous à vélo. <https://annehidalgo2020.com/toutes-et-tous-a-velo/> (2021년 1월 6일 검색).

3

정책공약② 연대(solidarité)의 도시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차별화된 주택 공급

임대료 상한선 제한조치를 통해 임차인 보호

- 지나치게 높아진 주택임대료 안정을 위해 건축 연도, 생활공간(거실·침실)의 수, 가구 유무 여부, m²당 평균 임대료, 상한가, 하한가를 일드프랑스 임대료 제한 홈페이지(<http://www.referenceloyer.drihl.ile-de-france.developpement-durable.gouv.fr/>)에 게시
- 파리가 시범 시행, 2019년 7월 1일부터 모든 신규계약에 적용하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재설정

중산층을 위해 시세보다 20% 저렴한 임대주택 제공(공공 부동산기업 창설, 6년간 2천억 유로 투자)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는 개념의 자가 소유형 반값 주택 6천 호 공급

2025년까지 코뮌당 복지주택 의무 보유율(25%) 달성을 위해 파리시 전역에 사회(임대)주택 건설(2019년 21.4%)

노숙자를 위한 임시 거처(노숙자 응급숙소 설치 및 자원봉사 주민 교육), 청년 노동자를 위한 숙소 마련

파리시민의 구매력 증대

노인·장애인 대상 교통요금 무상정책 유지, 만 18세 미만 어린이·청소년까지 무상교통사업 대상 확대

방과 후 활동 무료화, 한부모가정에 아이 돌보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도움 수표'(chèque coup de main, 선불카드 및 상품권 개념)를 제공하여 한부모가정에서 돌보미 이용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

파리시민이 기본진료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사를 모든 지구에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

* 프랑스에서 의사는 3개 범주로 분류됨. 범주 1은 정부가 정한 기본진료비(23유로) 지불 및 의료보험 혜택(70% 환급). 범주 2는 진료비 자율 책정 및 의료보험 환급은 1과 동등. 범주 3은 진료비 자율 책정과 의료보험 환급이 거의 안 됨. 범주 2, 3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많으므로 서민들 의료부담이 큼. 이 공약은 기본진료비만 받는 의사를 보건소에 배치하거나 개인병원 설립을 시가 지원한다는 의미

의료보험 이외에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추가 비용을 보장하는 연대형 상호공제보험 가입조건 완화

모든 세대를 위한 기반서비스 확충

은퇴자 지원 프로그램 확대, 퇴직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무료 체육·문화 활동 지원, 70세 이상의 시민에게 필요한 주택 개보수 제안, 노인 동반 서비스 확대

요양사 혹은 간병인과 같은 노인 돌보미의 휴식과 정보 공유를 위한 쉼터 마련

대학생 주거시설 확대, 치과·안과·산부인과 등 전문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의료시설 마련

어린이집 4천 개 자리 증설, 초등교육(만 3세~11세) 기관의 방과 후 교실 운영시간 30분 연장(19시까지)

시민 생활의 편리를 위한 연대적 서비스 도입

- (적극적 시정 참여) 지구별로 커뮤니티 운영에 관심이 있는 주민은 노숙자 거처 지킴이, 쓰레기 줄이기,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시정에 참여 가능
- (고립과의 싸움) '동반자 파리'(Paris en compagnie) 서비스를 확대하여 65세가 넘는 노인의 고립을 방지, 시민 이웃 네트워크를 만들어 고립되고 취약한 독거노인 보호, 특히 극서(極暑) 현상이 나타나는 여름을 대비하여 건물별로 최소 3명 이상이 이 조치에 참여하면 '연대적 건물'(immeuble solidaire) 인증 부여
- (디지털 접근성 강화) 공문서 작성이 힘든 주민을 위한 기존의 공공필기 도우미(écrivain public) 서비스를 공공 디지털 필기 도우미(écrivain public numérique) 서비스로 전환, '시민의 창구'(Kiosque citoyen) 또는 방문 도움 제공

4

정책공약③ 모두가 평등한 파리를 위한 약속

남녀 간의 실질적 평등 보장

- ♀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해 관련 기관 간 협조 강화 및 시 경찰 5천여 명을 배치하여 성차별 및 폭력에 대처
- ♀ 여성 위생용품 구매가 어려운 학생을 위해 중학교부터 무료 생리대 지급(파리 10구에 시범 시행), 향후 공공기관에 무료 지급기를 설치할 예정
- ♀ 가정폭력에서 피해 여성이 외부로 도움 요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경찰서마다 1명의 담당 시청직원 배치

모두를 위한 통행권 보장

- ♀ 2024년 파리 올림픽과 패럴림픽 개최를 계기로 장애인의 통행권을 보장하는 시설(특히 지하철) 재정비
 - 장애인 이용을 위한 일드프랑스 6호선 지하철 재정비, 지하철역 주변의 인도 확장 및 지하철역 접근성 개선
- ♀ 소형 오토바이, 자율주행자동차, 공유자동차 등 시가 제공하는 새로운 교통수단 사업자 선정 시 사업자는 장애인 이용자의 권리를 명시할 필요

성차별과 인종차별이 없는 도시

- ♀ 부모와 국가의 반대에 부딪힌 청소년 성 소수자, 망명한 성 소수자를 포용하는 정책 시행
 - 거처가 없는 성소수자, 특히 노인을 위한 숙소 및 동반 시스템 운영, 시경찰을 교육해 성차별로 인한 문제 방지 노력
- ♀ 반유대인주의 배척, 쇼아 기념관(Shoah, 유대인 학살 추모 기념관)을 증축하여 반유대주의 청산 노력 지속,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인종차별을 비롯한 모든 차별을 청산하는 노력 지속

건축문화유산의 보호

- ♀ 교회를 비롯한 종교시설의 건축 정비 신규계획 수립, 도시 정비 계획도에서 건축문화유산의 보호 강화
- ♀ 고대 유산(노트르담 성당 지하 예배당, 뤼테스 원형경기장, 클뤼니 수도원 주변) 가치 제고를 위한 재정비 공사
- ♀ 파리의 시립미술관 재생 공사를 위한 재정 지원 지속

균형개발을 위한 노력

- ♀ 시의 투자계획 사업비의 25%를 서민 지구(가령 동북부 19·20구)에 할애하여 서민 지구에도 공평한 권리와 기회 부여, 서민 지구에 안전보장, 청결, 고용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 ♀ 순환경제, 재활용, 디지털, 모든 개보수 분야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교육 시행
 - ‘시민의 창구’ 사업의 주민재교육 및 스스로 하기(DIY)와 같이 주민의 사회·도시 발전 프로젝트 참여 유도
- ♀ 파리 동북부에서 시범적으로 벌이고 있는 ‘장기실업자가 없는 곳’ 모델 확대 시행
 - 지역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모든 이에게 지속가능한 고용을 제공하고자 하는 실업 해소 운동으로 민간협회와 노조가 중심이 되어 고용을 창출해가며 정부의 실업보조비용을 고용비용으로 전환하는 방식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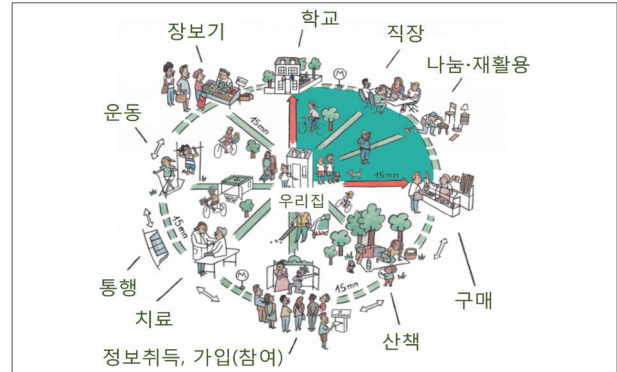
정책공약④ 15분 도시(La ville du quart d'heure) 파리

15분 도시란?

📍 근거리 서비스에 기반한 도시로, 도시 내 지구(혹은 동네) 주민끼리 길에서 서로 만나기가 쉽고, 함께 생활환경을 가꾸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도시 지향

- 집에서 도보로 15분 이내에 서점, 식료품 상점을 비롯한 다양한 소상점, 학교, 문화시설, 의료시설, 공공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도시 구상
- 근거리 서비스 기반과 더불어 주민 간 자발적 협력 환경 조성, 이를 위해 시 주체와 민간협회, 주민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시행

〈그림 3〉 근거리 생활기반 15분 도시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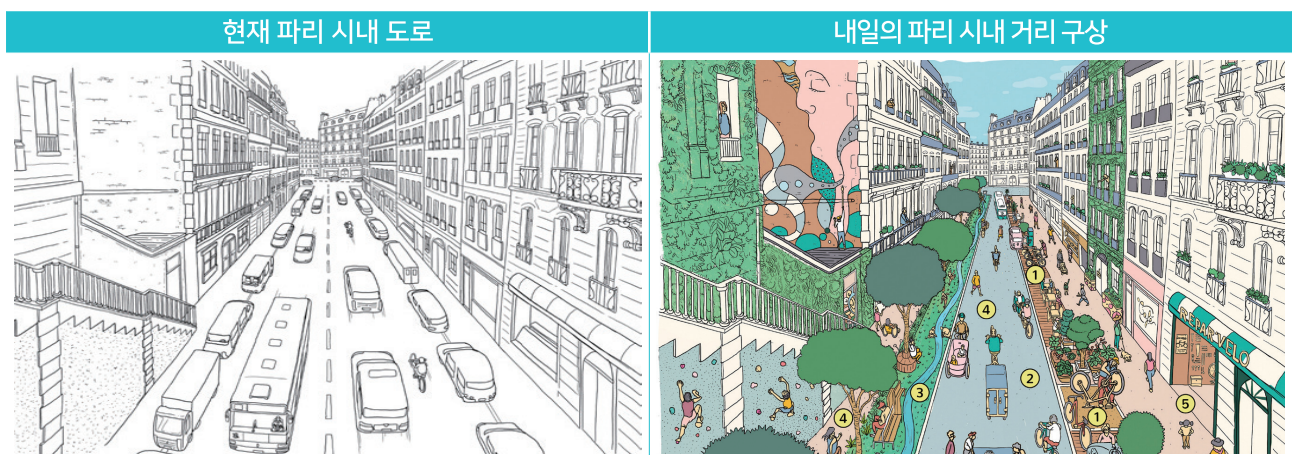
출처: Paris en Commun. La ville du 1/4 d'heure, qu'est-ce que c'est? <https://annehidalgo2020.com/la-ville-du-1-4-dheure-quest-ce-que-cest/> (2021년 1월 6일 검색).

도시를 15분 생활권으로 새롭게 조직

📍 더 깨끗하고 안전하며 여유 있는 도시 만들기

- 시 환경미화원, 경찰과 협력하여 더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만들기, 공공서비스 인력 배치 증가
- 모든 길에 100% 자전거 통행이 가능하며, 장애인의 이동이 자유로운 도시로 전환
- 파리 어디에 살든지 200m 이내에서 녹색공간(공원, 정원, 숲, 강 혹은 운하)을 이용
- 현존하는 도로변 주차공간을 자전거 보관소 및 주변 상인의 상품 보관장소로 활용

〈그림 4〉 자동차 중심 도로의 현재와 미래 변화



주: ① 길가 주차장 공간을 테라스와 정원으로 바꿈, ② 도보 이용자와 느린 교통수단 대상 공유길 조성, ③ 집 밖에서 바로 정원을 이용할 수 있게 조성, ④ 어린이 안전을 위한 길 조성, ⑤ 다양한 서비스를 근거리에서 제공(자전거 수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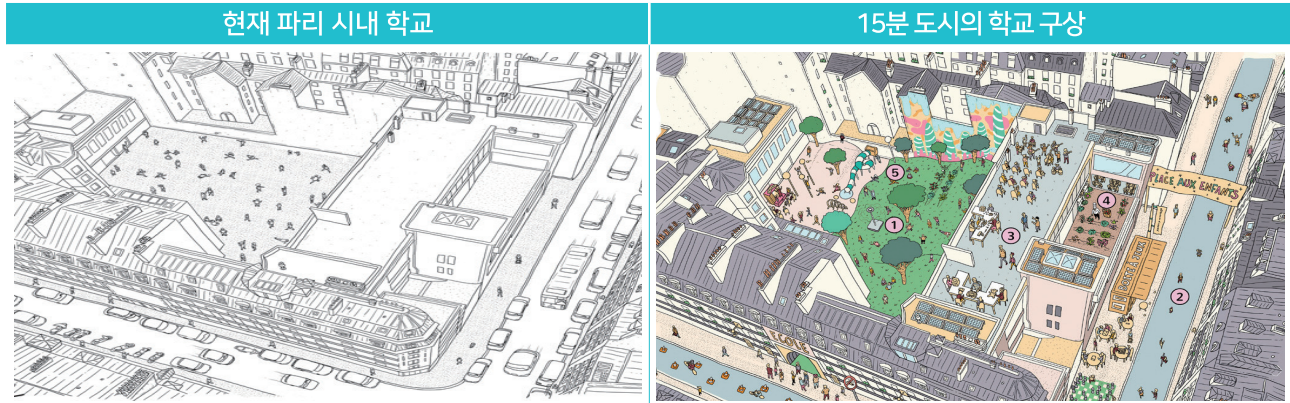
출처: Paris en Commun. La ville du 1/4 d'heure, qu'est-ce que c'est? <https://annehidalgo2020.com/la-ville-du-1-4-dheure-quest-ce-que-cest/> (2021년 1월 6일 검색).

근거리 서비스 강화

📍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녹색도시로 변모하되 하나의 장소를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구상

- 초등교육기관(3~6세 유치원, 6~11세 초등학교) 운동장(혹은 학교 정원)을 녹색공간으로 재정비, 주말에는 주민의 녹색 쉼터로 개방
- '어린이의 길' 조성, 등·하교 시간에는 학교 앞 도로의 자동차 통행금지

〈그림 5〉 주말 동안 학교를 주민의 녹색 쉼터로 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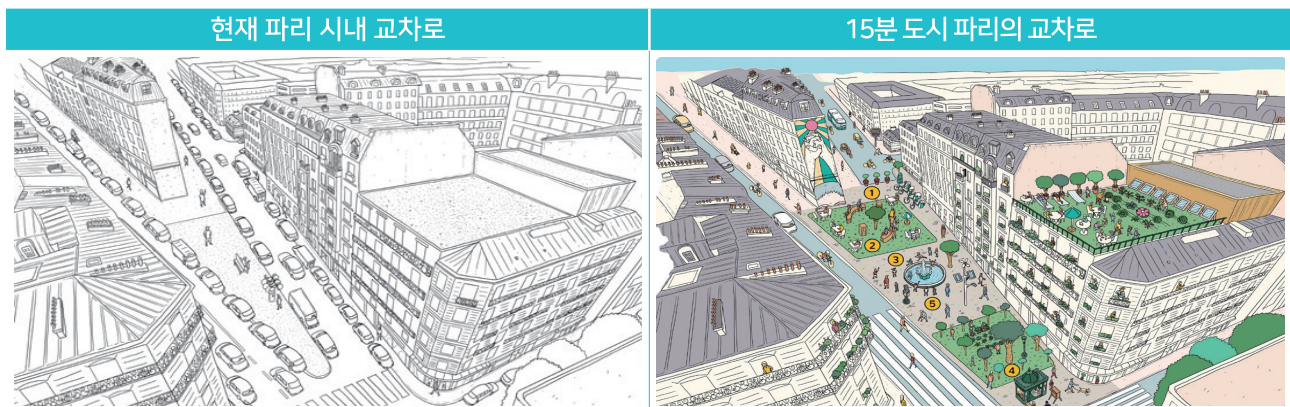
주: ① 학교 운동장을 주말에 개방하여 주민의 녹색 쉼터로 활용, ② 등교 시간 학교 앞 도로의 자동차 통행을 차단하여 어린이 놀이공간으로 활용, ③ 학교 공간을 문화, 환경, 목공 등 새로운 교육의 장소로 활용, ④ 유기농, 근거리 생산 농산물로 학교급식 제공, ⑤ 공기·토양 오염, 환경호르몬 분출이 없는 깨끗한 학교 만들기

출처: Dossier de presse. Le Paris du quart d'heure. <https://annehidalgo2020.com/espace-presse/> (2021년 1월 6일 검색).

📍 각 지구의 광장(교차로)을 녹지화된 지구 중심지로 새롭게 정비

- 도보전용 공간 마련, 어린이 놀이터 증설 및 놀이공간 확대, 녹색공간·공원·텃밭 확대, 친환경 에너지 사용 증대

〈그림 6〉 교차로를 주민의 만남의 장소로 전환



주: ① 교차로 혹은 광장을 지구(동네)의 중심지로 조성, ② 생활의 활기가 느껴지는 공간, ③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놀이공간, ④ 공유 텃밭, ⑤ 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

출처: Dossier de presse, Le Paris du quart d'heure, <https://annehidalgo2020.com/espace-presse/> (2021년 1월 6일 검색).

📍 근거리 내 문화, 체육, 의료, 상업시설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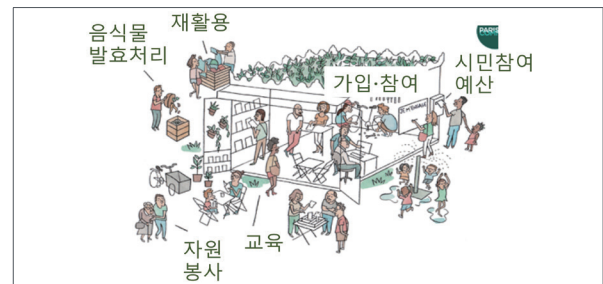
- (문화) 모두에게 개방된 다양한 예술 활동 공간을 포르트(Porte, 파리와 외곽을 드나드는 과거의 문), 외곽순환 도로 주변 및 광장에 마련, 지구별로 주민이 자율적으로 문화 활동 프로그램 조직과 공연, 콘서트, 오케스트라, 합창단 등 다양한 활동을 장려

- (체육) 기 운영되고 있는 ‘사회 스포츠 클럽’(sports social club)을 장려하여 커뮤니티별로 아이와 부모들이 모여서 운동하고 숙제도 함께 하며, 놀이 및 정원 가꾸기를 할 수 있는 공간 만들기
 - (의료) 20개 구별로 최소 1곳의 시립보건소를 설립하고 기본진료비로 의료서비스를 제공
 - (상업) 지구별 생활권이 형성되기 위해 근접 상권의 개발을 위한 노력, 하나의 방안으로 공기업 세마에스트(Société d'économie mixte d'aménagement de l'Est parisien: SEMAEST)*와 같이 공공부동산기업을 설립하여 이를 통해 상업용 공간을 시가 선점하는 방식으로 지구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상업시설이 입점하도록 유도
- * Société d'économie mixte(SEM): 공공이 자본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하나 이상의 민간주체가 참여하는 방식의 공공주식회사로 지자체 주도의 건설이나 지역개발사업을 위해 설립. 파리시는 20여개 SEM의 주주이며, 세마에스트(SEMAEST)는 파리 동부 공기업으로 파리 동남쪽 12구에 위치한 베르시지구(Quartier de Bercy), 구철도 산책로 재조성 사업 시행, 현재는 파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업공간 조성 담당. 필요한 기능의 우선적 입점 유도,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단기 임대·영업을 해보는 테스트 상점 등 참신한 아이디어로 상권의 재활성화 시도(SEMAEST, <https://www.semaest.fr/> (2021년 1월 18일 검색)).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시민의 창구’(Kiosque citoyen) 마련

- ② 시민 간 만남의 장소 조성을 통해 서로 도움을 교환하고 근거리 연대성(solidarité) 확보
- 키오스크에 착안해 시청직원이 상주하여 생활에 필요한 질문에 상담을 할 수 있는 장소 조성
- 쓰레기 재활용, 고용·구직 공고, 소규모 녹색공간 만들기, 퇴비 만들기 관련 교육 시행, 지구 내 협회 홍보 및 가입 가능
- 시민의 창구는 각 지구의 중심에 설치되며, 시청직원, 민간협회 및 주민 참여자, 구청의 협조로 운영

〈그림 8〉 지구별 시민의 창구(Kiosque citoyen) 마련



출처: Dossier de presse, Le Paris du quart d'heure, <https://annehidalgo2020.com/espace-presse/> (2021년 1월6일 검색).

6 시사점

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파리, 사회적·환경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결속과 연대의 가치 중시

- ② 안 이달고는 글로벌 생태적·사회적 전환은 필연적이고 이를 위해 도시가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지역 행위자들이 역동적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포용적 환경이 되어야 함을 강조
- 집값 상승, 고용 불안 등의 이슈에 대해 개발과 공급 중심의 정책을 지양하고, 생태·공동체의 가치 회복과 미래 세대를 염두에 둔 장기적인 사회 패러다임 전환 촉구
- ‘파리는 모두의 도시’라는 대전제하에 다양한 사회계층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도시를 공유하여 가능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설과 제도를 갱신
- ② 사회 결속과 연대의 가치를 담은 정책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된 소속감(장소감)을 부여
- ② 코로나19의 위기, 지역·계층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기업, 협회, 시민 등 모든 행위자가 참여해 도시의 혁신성을 발현하고 촉진하는 것이 필요함

이수진 프랑스 낭트대학교 강사(infofrancecoree@gmail.com)

허동숙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부연구위원(dshuh@krihs.re.kr, 044-960-0260)